



I.B.T.F. in 새만금 국제 콘퍼런스

23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25년 I.B.T.F. (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민주 도당 “내달 2일 새 위원장 선출”

권리당원 투표 90% 반영

임시당원대회 전주대 JJ아트홀서 개최

현재 윤준병·신영대 국회의원이 출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하 전북도당)이 공식인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당원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전북도당은 임시당원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구성했으며, 최찬욱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준비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임시당원대회를 다음달 2일 오후 3시, 전주 대학교 JJ아트홀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했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세부 투표 방법과 일정은 권정숙 전 전주시의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의 핵심은 권리당원의 영향력 강화다. 개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투표가 90%를 차지하며, 대의원 투표는 10%가 반영된다.

투표와 관련해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대의원 투표는 임시당원대회 당일인 11월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2025년 3월 31일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피선거권(후보 자격) 역시 권리행사 시행일(2025년 10월 1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

당원에게 주어진다.

도당위원장 후보 공모는 27일 12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중앙당의 심사 절차가 이어진다.

후보자들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면접 심사를 거치며, 그 결과는 10월 26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10월 27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의결이 이루어지면, 전북도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 기호 추천 등의 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당위원장 후보에 대한 기호추천 및 선거운동 방법 안내는 28일 오후 4시에 실시된다.

최종적으로 새롭게 선출된 도당위원장에 대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인준 의결은 11월 3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민주당 도당 위원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출마하여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며, 도당 위원장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에 치열한 경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안수용 목사니즘 정읍 대표

민주 을지로위 부위원장 임명

내년 지방선거에 정읍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안수용 목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정읍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기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이하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3년 발족한 당내 공식기구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안수용 대표는 사회적기업인 사단법인 들레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읍시 문화발전과 문화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외곽조직인 목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정읍시 대표로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바 있다.

특히 안 대표는 '문화가 경제다'는 사명감 아래 '정읍시의 경제 발전이 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정읍시를 4개 문화권역으로 나눈 정책을 시민들에게 설파'하는 등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혁신당 도당 대변인단 새출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전북 지역의 현안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인 대변인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임된 대변인단은 임형택 수석대변인(익산시지역위원장, Like익산포럼 대표, 전 익산시의원), 이화숙 대변인(군산대학교 특임교수, 전 전북도민일보 기자), 이효진 대변인(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전 완주주컬푸드협동조합 경영기획실장), 채민석 대변인(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대변인단 출범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별 현안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메시지를 발신하는 지역 기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지역형 의제 발굴과, 청년 문제에 대한 장기적 논평과 정책 제안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시중은행서 1조원 대출

민주 이원택 의원 “부실심사 여부 검증 철저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권오수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이 시중 금융권에서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농협·수협 및 단위조합, 부산·대구은행 등 지역은행과 19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1,157억8,000만원 △신한은행 930억원 △국민은행 781억원 △수협 648억원 △농협 606억 5,000만원 △우리은행 399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외국계 파이낸셜사, 캐피탈사, 카드사 등에서도 상당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도이치 그룹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배경과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농협·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부동산회사에 대출을 해준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후난성 정협 대표단, 교류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가 한·중 양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은 23일 도의회를 방문한 마오 완춘 주석을 비롯한 후난성 정협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양 지역의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만호 기자

“CITES 실패장어 등재 저지… 투트랙 대응 시급”

민주 윤준병 의원

국내 5,000억원 규모의 뱀장어 양식 산업이 국제거래 제한 위기에 놓였다.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실패장어를 포함한 뱀장어속 전 종을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CITES 당사국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될 경우, 뱀장어의 국제거래가 제한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뱀장어 양식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해양수산부는 등재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등재가 이뤄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게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양식어업 생산금액(6,163억원) 중 82.4%인 5,081억원이 뱀장어에서 발생하며, 특히 전북이 전체의 23.9%(1,215

억원)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실패장어 자원관리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외교 서한 발송 등으로 등재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 규모 산출과 사후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CITES 등재는 국내 뱀장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업계,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진료과별 편차 뚜렷”

조정 개시율 67.9%에 불과
내과 등 기피과 개시율 높고
안과 등 인기과 개시율 낮아

올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67.9%로 10년 중 3건은 여전히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에 따르면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등 ‘기피과’의 개시율이 높은 반면, 피부과(45.2%), 안과(49.2%), 성형외과(50%) 등 ‘인기과’는 낮았다.



조했다. 박 의원은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소극성이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조정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축! 전주매일 창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매도

① 농지 매도 대금 + ② 직불금 매월 50만원/ha
*최대 200만원(4ha)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① 농지임대 매월 최대 300만원
② 농지 임대료
③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우액 제외) + ④ 직불금 매월 40만원/ha
*최대 160만원(4ha)기준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

가입요건
10년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79세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전농지 및 경지 정리된 비전농지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KR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1577-7770